

용지난 여수산단, 기업들 발길 돌린다

여수지역에 산업용지가 부족해 외지 기업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입주기업들도 증설을 보류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전남도가 계획중인 용촌 2산업단지를 하루빨리 조성, 분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용촌 2산단의 경우 지난 1997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지방산단 지정·고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착공조차 하지 못해 지역경제계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존 산단 포화상태... 입주사 증설 엄두도 못내

10년 넘게 착공 못한 용촌 2산단 조성 서둘러야

지난달 30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여수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1천689만5천㎡(510만평)의 기존단지에 246개사가 입주해 있다. 또 오는 2010년까지 603만5천㎡(182만5천평) 규모의 확장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여수에 있는 지방산단 가운데 용촌 1산업단지는 916만㎡(277만평)으로, 이중 65%만 완공·분양됐으며 나머지 부분은 오는 2011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기존산단의 용지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신규 용지 또한 3~4년 후나 공급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공장용지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최근 여수상회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올해까지 여수산단에 입주를 문의하거나 증설여부를 타진해온 기업들은 선박 블록공장, 바이오디젤공장, 화학, 기계·선반분야 등 68개사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2~3년 후로 예정된 창업·증설만을 기대하며 동동 구르고 있으며, 블록공장·반도체공

장 등 일부 업체는 이미 다른 지역에 동지를 둔 상태다.

정병식 여수상의 조사부장은 "그동안 접근성이 열악했던 여수산단의 경우 2012박람회 유치 이후 SOC(사회간접자본)가 대폭 확충되고, 최근 여수지역의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등 기업환경이 좋아졌다"면서 "그러나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외자유치를 통해 여수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는 2011년 지방산단 입주예정인 A조선기자재 관련기업 대표는 "사업시행주체인 전남도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용촌 2산단 착공이 10년을 넘겼다"면서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현재 광양항 권

태이너부두 준설토 투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2산단 부지를 하루빨리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2산단 개발에 관한 용역착수보고회를 가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1천332만㎡(403만평) 규모의 2산단은 오는 2011년께 첫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산단은 지난해 전남 전체 수출액 2220억달러 중 78.6%인 173억달러를 차지했으며, 2006년 전남 생산액 61조원 중 65.8%인 40조원을 차지하는 등 전남산업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지역기업 첫 방문 송기진 光銀회장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광주 평동공단의 세화기계(주)를 방문했다. 송 회장은 이날 기업체 방문 이후 광주지역 중소기업 CEO 20여명과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경기하강 우려 높다

수출 호조 속 산업생산 증가세 주춤 소비·투자 부진... 경기선행지수 하락 5월중 광주 산업생산지수 크게 둔화

자동차 및 전자부품 생산감소 등의 영향으로 5월중 광주의 산업활동이 1년 전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경우 수출 호조 속에서도 산업생산 증가세가 한풀 꺾이고 소비와 투자 역시 부진을 이어가는 등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5월중 광주의 산업생산지수는 111.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에 비해 5.1% 떨어진 것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담배 부분의 생산 감소가 맞물린 결과로

풀어났다.

자동차의 경우 SUV형 승용차와 대형버스 등의 생산이 1년 전보다 6.8% 줄었다. 같은 기간 전자부품 및 영상음향통신부품의 생산도 18.1%나 감소하면서 광주 생활활동 둔화의 주된 요인이 됐다.

이같은 상황은 전국의 경우도 비슷하다. 5월중 전국의 광공업생산은 1년 전보다 8.3% 느는 데 그쳤다. 이같은 생산증가율은 지난해 11월(7.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소비와 투자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5월중 국내 소비재 판매는 가전제품·승용차·식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

했지만 전달보다는 오히려 0.6% 줄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 지난해 5월에 비해 2.5% 감소했다.

현재 경기 및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5월중 국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역시 소비자대지수 부진 등의 여파로 전달보다 0.5%포인트 하락하는 등 6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여수시 등 유화단지 지자체 국세 10% 지역에 환원 요청

여수시와 충남 서산시, 울산광역시 남구 등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석유화학단지내 기업들이 내는 국세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지자체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기와 수질 문제,

약취 등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문제, 농작물 피해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막대한 예산투자가 절실하지만 유화단지에서 징수되는 지방세는 국세의 1% 수준"이라며 "국세 납부 총액의 10% 이상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SPP조선그룹 임원 인사

서울 경영지원센터 사장 김인동·SPP해양조선 사장 박한정씨

세계 10위권 조선사인 SPP조선그룹이 조직력 강화와 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하반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SPP조선그룹은 김인동 SPP조선 부사장(사진 왼쪽)을 서울경영지원센터 사장으로, 계열사인 SPP해양조선의 박한정 대표이사 사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SPP조선그룹은 경남 통영의 SPP조선과 사천의 SPP해양조선에서 5만~10만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과



3만~8만급 벌크선 등을 건조하는 등 중형사이즈 선박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보해 '아리수 상표권' 서울시에 무상 기증

보해양조(주)가 1995년부터 보유해온 '아리수 상표권'을 지난 달 30일 서울시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아리수'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시가 생산하고 있는 수돗물의 공식명칭으로, 서울시는 '아리수' 상표등록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보해가 이미 상표등록하는 바람에 그동안 공공목적외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업무표장으로 등록해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세계적인 수준의 음용수인 '아리수'의 우수성과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지난 4월 '아리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보해양조 측에 상표권 양도를 요청했다.

임건우(사진 왼쪽) 보해양조 대표는 서울시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 '아리수' 상표권을 서울시에 내놓기로 결정하고, 이날 '아리수' 상표에 관한 무상양여 기증서와 상표권등록이전 원부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보해양조의 이번 기증에 따라 서울시는 '아리수'라는 브랜드로 서울 수돗물의 상품화가 가능하게 됐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기아 '스포티지 프렌드' 시판



기아차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인 스포티지에 가솔린 엔진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모델 '스포티지 프렌드(사진)'를 1일부터 판매에 들어갔다.

스포티지 프렌드는 최고 출력 142마력, 최대 토크 18.8kg·m인 2.0 가솔린 엔진에 자동변속기를 탑재했으

며 최고급형 모델은 후방주차보조시스템, MP3 CDP, 열선시트, 인조가죽시트 등 다양한 편의사양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기아차는 "최근 주목받는 가솔린 SUV의 라인업을 대폭 보강했다"며 "스포티지 프렌드 모델의 고급형·최고급형 2개 트림(Trim)과 더불어

TLX와 VIP 팩 등 5개의 가솔린모델 트림을 운영하는 만큼 고객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티지 프렌드의 가격은 자동변속기 기준 1천580만원~1천892만원이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正統日食 **미도**

확장개업

비밀전·개발혁신 고급요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상의 맛
손님을 위해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총점액 50억 이상 (동서구각 50대)

234-0001

자연 **愛** !! 살고싶다

오랜 기다림의 행복!!

'달양수복' 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시원 : (주) 달양수복
서공 : (주) 자연재개발

www.njverstate.com

문의 062-251-4000 / 041-383-2348